

합열농공단지 기업투자유치 첫발

에스아이휘징 합열농공단지 6,600㎡ 부지에 27억원 투자 키로
신규고용창출·인구유입·인구증가 등 북부권 활성화 기여

익산시가 지난 20일 (주)에스아이휘징과 합열농공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성사된 것어서 더욱 값진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에스아이휘징은 대전에 소재한 자동차·농기계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열간조조 기계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2년 창업 이래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최근 제품 수요의 증가로 인해 신규라인 증설과 주력제품 거래처 및 관련업종 기업이 익산 근교에 다수 입주하고 있어 향후 마케팅에도 집중할 필요성을 느껴 이전

확장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회사측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주)에스아이휘징은 합열농공단지 6,600㎡ 부지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합열농공단지 준공에 맞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로써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신규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인구증가 등 북부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에스아이휘징이 농기계 산업의 메카인 농업수도 익산에 입주를 계기로 농공단지 전문업종인 전기, 전자, 통신 외에 50%를 초과



익산시가 지난 20일 (주)에스아이휘징과 합열농공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분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에스아이휘징의 합열농공단지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

하며 다양한 기업투자원은 물론 익산에 동지를 튼 만큼 사업이 번창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의회, 김천시의회와 교류 통해 우호 증진

김천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측·교류활성화
김천시의회 일행 30여명 군산시의회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김천시의회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 일행 30여 명이 김천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측행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김천시의회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날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산시의회 서동완 부의장은 김천시의회 일행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후 군산시청 광장에서 관측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앞으로도 단순한 의회차원의 결연에서 벗어나 범시민 전체로 승화시켜 행정과 산업 경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청소년 교류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동반성장과 변역을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제8대 의회 출범이후 첫 만남으로 양 의회간 상호 협력과 의정발전을 위한 유대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방문, 공동연수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한층 더 높은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양 의회간의 우정이 김천포도와 자두 때문에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 양 의회 간 자매결연을 더욱더 공고히 하여 농산물 판매 교류 확대 및 문화·경제 교류 행사 등의 상호 교류로 양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속적인 상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천시 의원들도 "매번 양 의회가 만날 때마다 견조하고 미래지향적인 만남이 이어온 것처럼 추후에도 내실을 기하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인은 물론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천년별밤 백제왕궁' 익산문화재 야행 성황

올해 처음 익산 역사성 간직한 문화유산·콘텐츠 활용

익산시가 지난 20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개최한 '익산 문화재 야행'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백제무왕은 아름다운 왕궁을 왜 익산에 지었을까?'라는 주제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28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익산문화재 야행은 익산의 역사성을 간직해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백제왕궁 후원 산책', '숨은 서동·선화찾기', '고도육성 주민협의회의 꽃등 만들기' 등의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5개 무

형문화재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소원등을 들고 왕궁리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어보는 프로그램인 '천년기원을 담은 탑돌이'에는 200여명의 참가 인원이 동시에 꽃등을 밝히며 탑을 도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관을 이뤘다. 또 이번 야행은 행사장 곳곳에 일음을 배치하고, 서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참가자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 문화재야행은 문화재가 가진 문화콘텐츠로써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문화재 야행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은 시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궈낸 결과"라며 "10월에 한 번 더 진행될 야행 행사에도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익산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여성회관

하반기 교육생 모집

익산시 여성회관에서는 '하반기 교육과정' 교육생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4개 과정 총 35과목이며, ▲자격증취득과정(11개) SW코딩(스크래치), 어린이북아트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홈카페마스터, 꽃차소믈리에 등 ▲취미·교양과정(9개) 화려한 남자요리, 약선요리, 프랑스저수, 홈패션과리폼(주·아간반) 등 ▲전통·문화 과정(9개) 서예, 왕초보 기타교실, 우쿨렐레, 한 국무용 등 ▲여성복지·건강과정(6개) 다이어트댄스, 국선도, 요가, 실버댄스(초·중급), 볼룬댄스 등이 다. 가꾸DIY지도사, 디저트 떡, 화려한 남자요리, 천연발효식초, 왕초보 기타교실 강좌는 양성이 조화로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남성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하반기 교육과정은 8월 20일 개강하여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수강료는 강좌별 교육기간에 따라 3만원 ~ 4만원(1만원/1개월 4주 기준)이고,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회관 ☎859-48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운영

군산시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일상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이동 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호, 경비버넌스(초·중급), 볼룬댄스 등이 다. 가꾸DIY지도사, 디저트 떡, 화려한 남자요리, 천연발효식초, 왕초보 기타교실 강좌는 양성이 조화로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남성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하반기 교육과정은 8월 20일 개강하여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수강료는 강좌별 교육기간에 따라 3만원 ~ 4만원(1만원/1개월 4주 기준)이고,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회관 ☎859-48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은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했으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동 신문고 현장에는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해 조사관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들었으며 군산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 경암동, 나눔 실천하는 착한가게 30~32호점 탄생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지에 소재한 그때그시절(대표 김현숙), 철길집(대표 허준배), 플립팝교복(대표 류진)이 경암동 '착한가게 30~32호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일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때그시절, 철길집, 플립팝교복을 착한가게 30~32호점으로 내란히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판을 전달받은 김현숙 대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가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 이웃 가게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길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착한가게를 적극 발굴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이 넘치는 경암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게나 기업들이 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게를 말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빈집 2곳 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 완료

익산시가 귀농·귀촌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빈집임대사업이 마무리 되고 2세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지붕 화강질 문, 창호, 보일러, 싱크대, 도배, 장판 등 전반적인 집수리 공사 후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근 농촌과 원도시에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주택은 주거 빈곤층과 귀농인, 신혼부부나 자영업 등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농촌마을의 마관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오산면과 왕궁면에 빈집을 확보해 각 1천2백만원(도·시비50%)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 공사를 마쳤다. 이번 빈집은 주거취약계층인 최 모(62)씨 1인파 이 모(43)씨 3인 가족에게 각각 임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